

〈데메테르 찬가〉에 구현된 ‘어머니 데메테르’의 특성과 그 신화사적 위상

정진희
(아주대학교)

◆ 국문초록

이 글은 『호메로스풍 찬가』의 한 편인 〈데메테르 찬가〉를 대상으로, 그 신화적 의미와 신화사적 위상을 가능하는 데 목적을 둔다. 〈데메테르 찬가〉가 엘레우시스 비의의 기원담으로 기능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데메테르의 어떤 모습이 의례의 주신(主神)으로서 강조되고 있는가를 살핀바, 〈데메테르 찬가〉는 데메테르 여신을 모성의 존재로 형상화하는 한편 데메테르의 모성을 ‘보살핌’을 본질로 하면서 서로 다른 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성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모성은 〈데메테르 찬가〉를 향유하던 사회의 가부장제적 질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대적 소산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데메테르 찬가〉는 가부장제 사회의 여신 신화로서 그 신화사적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데메테르의 모성적 특징은 생산이나 재생에 있고 그것은 대모신(지모신)의 여성적 생산성이 후대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는 신화사적 통설은 재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데메테르, 곡물신, 페르세포네, 데모폰, 모성, 어머니, 보살핌, 매개, 데메테르 찬가,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아

I. 서론

주지하다시피, ‘데메테르’는 그리스 신화의 곡물신이자 여신이다. 그리스 시대에 기록된 데메테르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마도 데메테르와 그의 딸 페르세포네에 대한 이야기일 터인데, 그 대략의 내용을 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하계의 신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탐하였는데, 하데스는 제우스의 동의를 얻어 페르세포네를 하계로 납치한다. 딸이 유괴된 사정을 알게 된 데메테르는 대지를 불모의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에 제우스는 페르세포네가 하계를 떠나 데메테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이미 페르세포네는 하계의 석류를 먹어버린 다음이었다. 하계의 음식을 먹은 자는 영원히 하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페르세포네는 한 해를 나누어 몇 달은 어머니의 곁에서, 또 다른 몇 달은 지하 세계에서 살게 되었다. 데메테르가 딸과 헤어져 있는 기간에 대지가 불모지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목되어 온 이야기이나, 여기에서는 신화학의 맥락에서 데메테르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자. 대표적으로 엘리아데는 이 이야기를 ‘모성의 생산력’을 보여주는 신화로 읽은 바 있다. 엘리아데는 신화 속의 대지(大地)가 ‘생산’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대지의 신이 남신 아닌 여신으로 표상된다고 생각했다.¹⁾ 다시 말해, 대지가 여신이라는 신화적 표상을 지니게 된 것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인 출산이 대지의 생산과 동일한 층위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엘리아데는 데메테르를 ‘대지 어머니’라는 고대 지모신 원형의 후대적 변형으로 본다. 농경 숭배가 점차 발달하면서 만물 가운데에서도 특히 식물을 생산하는 대지의 능력이 강조되면서, ‘대지 어머니(대모신, 지모신)’가 점차 ‘곡식의 어머니(곡모신)’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²⁾ 위의 이야기에서 데메테르는 하데스가 지배

1) 이에 대해서는 미르치아 엘리아데(이재실 옮김), 『종교사개론』, 까치, 1993의 제 7장 참조.

하는 죽음의 지하 세계로 납치된 딸 페르세포네를 지상 세계로 귀환하게 하는데, 엘리아데는 이를 죽음으로부터의 재생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재생 역시 모성의 생산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³⁾

엘리아데는 대모신이든 곡모신이든, 여신들의 신화적 속성은 ‘생산하는 모성’이라는 고대로부터의 원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데메테르 신화는 신화의 역사적 전개, 즉 신화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류의 역사가 여신 중심의 모계 사회에서 남신 중심의 부계 사회로 변천해 갔다는 시각을 지닌 일군의 종교학자나 신화학자들에게, 여성적 원리가 드러나는 데메테르 신화는 남신 중심의 신화 체계 내에서 과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신화로서 주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데메테르를 곡물의 신으로 만신전에 올리고 있는 그리스 신화가 남신 제우스를 정점으로 하는 가부장적 신화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제우스를 정점으로 하는 그리스 신화의 만신전이 형성되면서, 각 지역에서 숭배되던 여신들이 가부장제적 신화 체계 안에 축소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음도 지적된 바도 있다.⁴⁾ 이러한 상황 하에서 데메테르가 ‘생산하는 모성’이라는, 고대 여신의 속성이라고 여겨지는 특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데메테르가 “다른 어떤 그리스 여신보다도 성공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가부장제 이전의 의미들을 지켜낸 것”⁵⁾이며 그것이 여신 혹은 여성의 문화적 본질임을 뜻하게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의문을 자아내는 것은, 데메테르의 ‘어머니’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신화적 삽화, 즉 하데스가 납치한 딸 페르세포네를 되찾은 어머니 데메테르 이야기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메테르 찬가>에 처음으로 등장한

2) 위의 책, 235쪽 및 249-251쪽 참조. 엘리아데는 농경 숭배의 발달로 나타난 데메테르, 즉 “식물과 수확의 대여신”이라는 신화적 형상이 만물을 낳은 대지 어머니인 가이아의 위치를 대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사자(死者: 필자)들은 모태 안에 매장되어 거기서 휴식하고 지모의 신성성에 의해서 마침내는 재생되어 삶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위의 책, 251쪽.

4) 리타 M. 그로스(김윤성·이유나 옮김), 『페미니즘과 종교』, 청년사, 1999, 208쪽 참조.

5) 위의 책, 208쪽.

다는 점이다.⁶⁾ 가령 이보다 앞선 시기인 초기 그리스 신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헤시오도스의 저작에서 곡물의 신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의 어머니이고 또 페르세포네는 하데스에 의해 납치되지만,⁷⁾ <데메테르 찬가>에 등장하는 페르세포네의 ‘귀환’ 삽화는 여기에 없다. 생산하고 재생시키는 모성의 원리가 나타난다고 해석되어 온 페르세포네의 귀환 삽화가 <데메테르 찬가>에 이르러서야 나타난다는 사실은, 생산(또는 재생)하는 어머니로서의 데메테르의 이미지를 여성신의 원형과 관련짓는 견해, 나아가 생산하는 여성신 관념이 남성 사회 이전에 존재했던 여성 사회의 소산으로서 ‘아주 오래된 태초의 것’이라고 보는 견해의 타당성을 약화시킬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본고는, 위의 신화에서 데메테르 여신이 ‘생산하는 모성’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통설이 타당한가 하는 점부터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스의 데메테르 신화는 과연, 데메테르가 지니는 모성의 본질을 데메테르가 지니는 생래적 능력에 결부되는 ‘생산’ 혹은 ‘재생’으로 형상화했는가의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하는 것이다.⁸⁾ 이러한 문제를 따져보면,

-
- 6) <데메테르 찬가>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유사한 율격 및 표현으로 쓰여진 일련의 찬가들을 모은 『호메로스풍 찬가』에 수록된 찬가들 중의 하나이다.
- 7) 헤시오도스(천병희 옮김), 『신들의 계보』, 숲, 2009, 87쪽(『신통기』 912-914행). “그분(제우스: 필자)께서 또 많은 것을 양육하는 데메테르의 침상으로 가시니, 그녀는 흰 팔의 페르세포네를 낳았다.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어머니 곁에서 납치해갔으니, 지략이 뛰어난 제우스께서 그에게 그녀를 주었던 것이다.”
- 8) 이 논문을 심사해 준 익명의 심사자에 따르면 엘리야데의 언급은 “오늘날 어느 정도 화석화된 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굳이 엘리야데의 견해를 통설적인 선행 연구로 거론한 것은, 현재의 한국 신화 해석 및 연구에서 엘리야데가 지니는 위상 때문이다. 엘리야데의 견해는 ‘신화 일반론’, ‘일반적 신화론’으로서 종종 무비판적으로 인용되며, 한국의 농경 여신을 지모신으로 간주하는 견해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필자는 곡물의 풍요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데메테르와 비견될 수 있는 한국의 농경 여신이 ‘생산하는 모성’이 아니라는 논지의 글(정진희, 『풍요여신은 ‘생산’하는가?』, 『한국고전여성문화연구』 31, 2015)을 발표 하면서, 농경 풍요의 여신은 곧 ‘생산’하는 어머니 신이라는 견해가 대표적 사례로 드는 데메테르 신화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국과 오키나와 신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온 필자가 그리스 원전이 아닌 영역본과 일역본에 의지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데메테르 신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연이 동기가 된 것이다. 데메테르조차도 ‘생산하는 모성’이 아니라면, 한국의 여성 농경신이 지니는 면모는 비교신화의 차원에서 일반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페르세포네의 귀환이 ‘모태인 대지에 매장되어 휴식하다가 어머니의 신성성에 의해 재생하는 곡물’을 나타내는 신화적 은유인가 하는 점도 자연스럽게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페르세포네의 귀환 삽화를 포함하고 있는 데메테르 신화의 여러 텍스트들 가운데 가장 상세하고 이른 버전인 <데메테르 찬가>를 분석 텍스트로 삼아,⁹⁾ <데메테르 찬가>가 기록될 당시 ‘어머니 여신 데메테르’가 어떻게 형상화되었고 그런 신화적 형상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었던가를 고찰하려 한다. 즉, ‘어머니 데메테르’라는 신화적 표상의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의 방법으로 본고는 신화학적 일반론 차원에서의 선입견에 따른 자의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데메테르 찬가>라는 텍스트 자체를 면밀히 읽는 방법을 취한다. <데메테르 찬가>가 어떤 신화적 우주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어머니 여신 데메테르’가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II. 〈데메테르 찬가〉의 서사 구성과 엘레우시스 비의와의 관계

<데메테르 찬가>는 모두 495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메로스풍 찬가』에 수록된 다른 찬가에 비할 때 그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데스가 제우스의 용인 하에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를 납치한다.

(나) 데메테르는 딸의 비명 소리를 듣고 딸을 찾아 헤매다가, 헤카테와

9) 본고에서 검토한 자료는 <데메테르 찬가>의 그리스어 원본이 아닌 영역본임을 미리 밝혀 둔다. 여기에서 참조한 텍스트의 출전은 Helene P. Foley ed., *The Homeric Hymn to Demeter: Translation, Commentary, and Interpretive Essay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이하에서 같은 책의 인용은 2013년 간행 킨들판에 따르며, <데메테르 찬가>를 인용할 경우 인용한 찬가의 행수만을 인용문 뒤 괄호 안에 밝혀 적는다)이다. <데메테르 찬가>의 내용을 한국어로 정리한 김봉철, 『그리스 신화의 변천사』, 길, 2014, 512-521쪽 및 일본어 번역본 沓掛良彦 역, 『ホメーロスの諸神讃歌』, 平凡社, 1990도 함께 참고했다.

헬리오스의 도움으로 제우스가 페르세포네를 하데스에게 준 것을 알게 된다.

- (다)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데메테르는 올림포스를 떠나 변장한 채 인간의 세계를 떠돌아다닌다.
- (라) 노파로 변장한 데메테르는 엘레우시스의 지배자 켈레오스의 딸들에게 이끌려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딸을 잃은 후 처음으로 웃고 마실 것을 입에 댈다.
- (마) 데메테르는 켈레오스와 메타네이라의 아들 데모폰의 유모가 되어 데모폰을 불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한다.
- (바) 메타네이라 때문에 데모폰을 불사의 존재로 만드는 데 실패하고 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자, 데메테르는 신전을 세울 것을 명하고 그곳에 물러나 머문다.
- (사) 은신한 데메테르는 대지가 씨앗의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하여 불모의 재앙을 초래한다.
- (아) 제우스의 사자들이 올림포스로 돌아올 것을 설득하지만, 데메테르는 직접 딸을 보기 전에는 따를 수 없다고 거절한다.
- (자)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하데스에게 보내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낼 것을 설득한다.
- (차)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에게 석류 열매를 먹이고 그녀를 데메테르에게 돌려보낸다.
- (카) 어머니 데메테르와 재회한 페르세포네는 저간의 사정을 모두 데메테르에게 말한다.
- (타) 제우스는 레아를 보내 데메테르의 귀환을 요구하고, 데메테르의 영예와 페르세포네가 한 해의 삼분의 일만 지하세계에서 보낼 것을 약속한다.
- (파) 제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레아의 말에 따라 데메테르는 평원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온다.
- (하) 데메테르는 엘레우시스의 지배자들을 찾아가 성스러운 미스터리아를 알려주고 올림포스로 돌아간다.

〈데메테르 찬가〉는 잘 알려진 데메테르 신화, 즉 데메테르가 딸 페르세포네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위의 (가), (나), (사)-(파)의 서사가 그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나)와 (사) 사이에 페르세포네의 행방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데메테르의 행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데메테르는 딸의 납치를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대지를 불모의 땅으로 만든 게 아니다. 딸의 납치를 알게 되어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데메테르는, 올림포스를 떠나 인간 세계를 유랑한다. 데메테르는 유랑 중 엘레우시스의 왕 켈레오스의 아들인 데모폰의 유모가 되어 그를 불사의 존재로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엘레우시스의 신전에 은거한다. 대지가 불모의 땅이 된 것은 이 은거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페르세포네의 행방과 관련되는 주요 서사, 즉 (사)-(파)가 전개된다. 페르세포네를 다시 만난 데메테르는 올림포스로 돌아가기로 하고 대지를 다시 회복시킨다. 페르세포네의 행방과 관련되는 데메테르 신화의 서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셈이지만, 그러나 〈데메테르 찬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데메테르 찬가〉에는 마지막에 (하)의 이야기를 덧붙여 있다. 딸을 되찾아 올림포스로 돌아갈 여건이 조성되자 데메테르는 은거하고 있던 신전을 떠나는데, 그에 앞서 엘레우시스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미스테리아’를 알려준다.

기본적인 서사적 줄기는 페르세포네의 납치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인 듯 하나 중간에 다른 이야기-이는 보통 ‘데모폰 삽화’라 칭해진다-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데메테르 찬가〉의 최종적인 결말이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모녀가 아니라 데메테르와 엘레우시스 사람들의 행적을 다루는 단락으로 끝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메테르 찬가〉의 서사 구성상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무엇을 뜻하는가? 데모폰 삽화가 서사의 흥미를 위한 단순한 삽입물에 불과한 것이 아님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¹⁰⁾ 〈데메테르 찬가〉를 의례와 결부되어 있는 신화로 본다면 더더욱 그렇다. 마지막 (하) 단

10) 〈데메테르 찬가〉에서 데모폰 삽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Nancy Felton-Rubin and Harriet M. Deal, “Some Functions of the Demophon Episode in the Homeric Hymn to Demeter”, Helene P. Foley ed., 앞의 책 참조.

락에 따르면 <데메테르 찬가>는 엘레우시스의 미스테리아, 즉 비의(秘儀)의 기원담이자 원인론적 신화라 할 수 있는바,¹¹⁾ (하)와 직결되는 데모폰 삽화는 <데메테르 찬가>가 의례의 구술 상관물로서의 신화라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데메테르 찬가>는 데모폰 삽화를 데메테르-페르세포네 서사에 결합시킴으로써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아의 원인론적 신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데메테르 찬가>의 신화적 의미가 페르세포네의 행방과 관련된다는 데메테르-페르세포네 서사뿐만 아니라 데모폰 삽화를 통해서, 또 이 서사적 결합의 의미를 묻는 데에서 찾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데메테르 찬가>가 엘레우시스 비의의 기원담으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데메테르 찬가>의 신화적 의미에 접근할 수 있을 터다.

먼저, 엘레우시스 비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의례였는가를 살펴보자. 엘레우시스 비의는 원래 엘레우시스의 지역 의례에 불과했던 것이 아테네의 주도 하에 전 그리스의 대표적 종교 행사로 자리매김된 것이었다.¹²⁾ 디오니소스 비의, 오르페우스 비의 등 여타 고대 그리스의 비의는 폴리스의 탄압을 받을 정도로 개인 종교적 특성을 지녔던 데 비해, 폴리스의 주도로 치러진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아는 비의로서의 개인 종교적 특성과 공식 종교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지녔던 의례였다.¹³⁾ 공적 의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레우시스 비의의 구체적 내용과 전모가 아직 선명하게 밝혀지지 못한 까닭은 그것이 ‘비의(秘儀)’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엘레우시스 비의의 의례적 기능이 무엇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데메테르 찬가> 그 자체이다. <데메테르 찬가>에 따르면, 곡물신 데메테르가 주신으로 섬겨진 의례였던

11) <데메테르 찬가>를 엘레우시스 비의의 원인론적 신화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위의 책, Loc 3471 of 10435 참조.

12) 최혜영,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아: 데메테르·이시스·이난나의 비교」, 『서양사론』 83, 2004, 12쪽. 엘레우시스와 아테네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자영, 「엘레우시스와 아테네: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정치적 지역적 연계의 유연성」, 『서양고대사연구』 22, 2008 참조.

13) 김효진, 「고대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아의 변화 양상-아테네 상황과 관련하여-」, 전남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1-2쪽 참조.

만큼 비의의 기능 중 하나는 곡물의 풍요로부터 연상되었을 부(富)의 보증이었다.

복되도다

그들(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필자)이 자애롭게 베푸는 사랑을 받는
지상의 사람은.

왜냐하면 곧 그들이 그(지상의 사람: 필자) 사람의 집에,
풍요의 신 플루토스를 보낼 것이기에.(밀줄 필자)(486-489행)

위 인용문은 비의에서 섬겨지는 신이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둘 다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자애로운 사랑을 받는 엘레우시스 비의의 입사자들은 그들이 보낸 ‘플루토스’, 즉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을 맞이하게 됨을 노래하고 있다. 플루토스는 <데메테르 찬가>의 기록 시기로 추정되는 기원전 7세기 이전의 텍스트인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서도 이미 데메테르의 아들이자 부(富)의 신으로 그려진 바 있는 신격이다.¹⁴⁾ 엘레우시스 비의의 입사자들이 풍요의 신 플루토스를 맞이한다는 <데메테르 찬가>의 내용은, 비의의 목적이 의례를 통해 현세에서의 풍요를 약속받는 데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엘레우시스 비의의 의례적 기능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 의례를 본 지상의 인간은 신의 가호를 받았다.

그러나 의례에서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은 비입사자는 절대
죽은 후 음울한 어둠 속에서 같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밀줄 필자)(480-482행)

<데메테르 찬가>는 ‘이 의례’, 즉 엘레우시스 비의에의 참여를 기준으로 입사자, 즉 ‘이 의례를 본 지상의 인간’과 그렇지 않은 ‘비입사자’를 구분하고, 입사자는 ‘신의 가호’를 받지만 비입사자는 입사자가 받는 신의 가호를

14)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데메테르는 영웅 이아시온과/기름진 크레테 나라에서, 세 번이나 갈아엎은 목정밭에서/그리운 사랑으로 교합하여 선량한 신인 플루토스를 낳으니,/그는 온 대지와 바다의 넓은 등을 돌아다니며/누구든 자기와 만나 자기를 껴안는 자를/부자로 만들어주고, 많은 복을 내려준다.” 헤시오도스(천병희 옮김), 『신들의 계보』, 숲, 2009, 91쪽(『신통기』 969-974행).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신의 가호란, ‘죽은 후 음울한 어둠 속에서’ 누리게 될 ‘신의 가호’이다. 여기에서 엘레우시스 비의의 의례적 기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인간의 사후(死後) 안녕을 보장하는 데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데메테르 찬가>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엘레우시스 비의의 기능은 의례 자체를 언급하는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복된 신들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미스테리아는 정말 아름답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도 죽음은 더 이상 악이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명문이나 “이것을 보고 지하 세계로 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핀다로스의 서술은,¹⁵⁾ 엘레우시스 비의의 의례적 기능이 죽음을 맞이할 운명인 인간에게 사후 세계의 안녕을 약속하는 데 있었음을 새삼 확인케 한다.

이렇듯 <데메테르 찬가>는 엘레우시스 비의의 의례적 목적이 현세의 풍요와 사후 세계의 안녕임을 명시하고 있다. 찬가의 주인공인 데메테르가 곡물신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데메테르 찬가>의 신화적 기능은 곡물의 생장을 담당하는 곡물신이었던 데메테르가 어떻게 해서 풍요는 물론 사후 세계의 안녕까지 보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데메테르 찬가>의 서사를 살펴 보자.

편의상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이야기를 A 서사, 데메테르와 데모폰 이야기를 B 서사라고 하자. <데메테르 찬가>는 데메테르가 엘레우시스 사람들에게 비의를 가르쳐주고는 올림포스로 귀환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이 때의 데메테르, 즉 A 서사와 B 서사를 모두 거친 데메테르는 올림포스를 떠나 올 때의 데메테르에 비할 때 그 신격적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서사 이전 곡물신이었던 데메테르는,¹⁶⁾ 서사 이후 곡물신으로서의 신성을 유지하는 한편 풍요와 사후의 안녕을 보장하는 엘레우시스 비의의 주신이 된다. <데메테르 찬가>는, 데메테르가 곡물신이 될 수 있었던 연유를 설명하는 기원답이 아니라, 데메테르가 엘레우시스 비의의 주신이 될 수 있었던 연유는

15) 최혜영, 앞의 글, 17쪽.

16) 데메테르는 곡물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와 불만을 곡물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 데메테르는 <데메테르 찬가>에서 서술되는 일련의 신화적 사건 이후에 곡물신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 이전에 이미 곡물신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엘레우시스 비의의 주신 데메테르에 대한 신화라는 시각에서 <데메테르 찬가>를 보면, A 서사와 B 서사는 모두 ‘어머니 데메테르’가 주인공이고 ‘자식의 죽음’이 서사의 주요 테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A 서사에서 딸 페르세포네는 하데스에 의해 지하 세계, 즉 사후 세계로 끌려간다. 다시 말해 페르세포네는 죽음의 세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원래 페르세포네는 올림포스의 신 제우스와 데메테르 사이에서 태어났기에 선천적으로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우스의 용인 하에 하데스의 지하 세계, 즉 죽음의 세계로 납치되고 만다. 어머니 데메테르는 지하 세계로 끌려간 페르세포네를 비록 몇 달씩이나마 해마다 다시 지상 세계로 불러 올리는 데 성공한다. 사후 인간의 안녕을 비는 엘레우시스 비의에서 데메테르가 주신이 될 수 있는 것은, 데메테르가 직접 지하 세계를 다스리거나 죽음을 관장하는 신격은 아니지만 사후 세계로 끌려갔던 페르세포네를 다시 지상 세계로 올 수 있게 한 행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B 역시, 엘레우시스 비의의 주신으로 데메테르가 모셔지는 연유를 설명한다. 페르세포네와는 달리 데모폰은 인간이어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데모폰의 유사 어머니, 즉 유모가 된 데메테르는 데모폰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데모폰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데메테르의 이 시도는 실패하고 만다. 데모폰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 행한 데메테르의 의식을 인간(데모폰의 친모 메타네이라)이 엿봄으로써, 데메테르의 의도는 무위로 돌아간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후이다. <데메테르 찬가>는 이제 불사의 존재가 될 수 없게 된 데모폰을 위해 데메테르가 한 ‘약속’을 덧붙인다.

데메테르는 메타네이라에게 말했다.

“인간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운명을, 그들에게 닥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너는 너의 어리석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

나는 너의 아이를 불로불사로 만들려 했건만,

나는 그에게 영원한 명예를 주려 했건만.

하지만 이제 그는 죽음과 죽음의 신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영원한 명예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 슬하에 있었고 내 품에서 잠들었기에.(밀줄 필자)”(255-264행)

데모폰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려는 데메테르의 의도는 실패했지만, 데메테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모폰이 그녀의 ‘슬하’와 ‘품’에 있었다는 인연을 근거로 죽음 이후의 ‘영원한 명예’를 약속한다. 올림포스로 돌아가기 전, 데메테르는 데모폰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고 엘레우스 사람들에게 비의를 전수한다. 이로 인해 ‘유사 어머니 데메테르’와 ‘아들 데모폰’의 관계는 ‘데메테르 신’과 ‘비의 입사자’의 관계로 전환되며,¹⁷⁾ 비의 입사자들은 이 신화적 사건을 근거로 사후의 안녕을 보장받게 된다. 요컨대 B 서사는, 데모폰에 대한 데메테르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사후의 안녕을 데메테르에게 기원하는 의례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삽화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딸이 하데스의 지하 세계로 납치되었음을 알고서도 슬픔과 분노로 유랑하는 것 이외에는 지하 세계로 끌려간 딸에게 그 어떤 직접적인 행위도 할 수 없었던 곡물신 데메테르가 인간의 사후 안녕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 <데메테르 찬가>가 이야기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데메테르가 사후 세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의 딸 페르세포네를 되찾게 되면서부터이다. 데메테르는 곡물신으로서의 태업을 통해 사후 세계로 납치되었던 딸을 되찾았고, 데메테르의 딸은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일정 기간을 사후 세계에 머무르며 그곳을 지배하는 하데스의 아내라는 지위도 겸비한다. 데메테르가 사후의 안녕을 인간들에게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은, 페르세포네의 행적과 지위가 그 근거로서 작동한 결과다. 데메테르뿐만 아니라 페르세포네도 비의의 대상신이었음을 다시 떠올리자. 페르세포네의 납치와 귀환이 중심인 A 서사가 비의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신화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페르세포네가 사후 세계와 연관되어 있음과 데메테르가 페르세포네를 지상으로 귀환할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가 의례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17) Nancy Felson and Harriet M. Deal, 앞의 글, Loc 6638 참조.

요약하자면 <데메테르 찬가>의 A 서사는 데메테르가 사후 세계에서
안녕을 약속할 수 있는 신이 된 연유를, B 서사는 데메테르와 엘레우시스
사람들이 관련을 맺게 된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곡물신이
었던 데메테르가 그의 딸과 함께 현세의 풍요는 물론이고 특히 인간의 사후
안녕을 약속하는 엘레우시스 비의의 주신이 된 연유를, 이러한 신화적 서사
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강조하건대 <데메테르 찬가>는 데메테르가
어떻게 곡물신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신화가 아니라, 곡물신 데메테르가
어떻게 사후 세계의 안녕을 보장하는 엘레우시스 비의의 주신이 될 수 있었
는가를 설명하는 신화라고 말할 수 있다.

Ⅲ. 데메테르 여신의 모성

<데메테르 찬가>에서 데메테르를 대표하는 신화적 형상이 ‘어머니’라는
데 토를 달 수는 없을 것이다. A 서사뿐만 아니라 B 삽화 역시 ‘어머니’ 데
메테르의 이야기이다.¹⁸⁾ 여기에서 ‘어머니’ 데메테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
나고 있는가? 한 선행 연구는 그리스 신화의 세계에서 데메테르를 ‘어머니’
라고 호칭하는 경우, 그것은 데메테르가 코레(페르세포네)의 어머니라는 특
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일 뿐 일반적 모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¹⁹⁾ 데메테르는 곡물의 여신이므로 “생산성을 상징하는 어머
니로서 인식될 만도 했”을 터인데, 데메테르를 ‘어머니’로 호칭한 용례는
“어머니의 생산성과는 무관”하다는 사실도 동시에 지적되었다.²⁰⁾ 이러한
지적은 데메테르가 지모신적 어머니로서의 생산력을 표상한다는 입장과 정
확히 배치(背馳)되는 것이다. <데메테르 찬가>에서 데메테르가 어머니 혹은
유사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그 어머니라는 표

18) 데모폰의 유모가 된 데메테르는 데모폰의 ‘유사 어머니’라고 할 수 있으며, 데메테르는 데모폰을 신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유사 어머니가 아닌 진정한 어머니가 되고자 시도한다.

19) 김봉철, 앞의 책, 507쪽. 김봉철은 데메테르에 대한 ‘어머니’ 호칭이 레아와 키벨레를 동일시하고 혼동한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같은 책, 506쪽 참조.

20) 위의 책, 504쪽.

상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를 좀더 면밀히 살피기로 한다.

1. 보살피는 어머니

<데메테르 찬가>에서 어머니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납치 당하는 순간 딸의 비명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비탄에 잠겨 아흐레 동안 딸을 찾아 헤맨다.

날카로운 고통이 그녀의 가슴을 덮치고,
그녀는 스스로의 손으로 신성한 머리카락 위를 덮은 베일을 찢었네.
(...)
비탄 속에서 그녀는 한 번도 암브로시아나 달콤한 넥타 음료를 맛보
지도 않고,
한 번도 몸을 씻지도 않았네.(40-50행)

아무도 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데메테르는 헤카테와 헬리오스의 도움으로 사태의 실상을 파악하게 된다. 이제 데메테르는 딸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사태를 일으킨 ‘크로노스의 아들’, 즉 제우스에 대한 분노에 휩싸인다.

더욱 지독하고 치명적인 고통이 데메테르의 가슴을 덮쳤네
이제 그녀는 검은 구름을 몰고 다니는 크로노스의 아들에게 분노하네
(90-91행)

데메테르는 올림포스를 떠남으로써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에게 분노를 표한다. 이러한 분노와 비탄은 <데메테르 찬가>의 기조를 이루는 통주저음(通奏低音)이다.²¹⁾ 페르세포네의 어머니로서 데메테르가 겪는 이러한 감정은 페르세포네의 아버지와 대비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데메테르 찬가>는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주기로 했던 제우스의 감정에 대해서

21) 杏掛良彦 역, 『ホメーロスの諸神讃歌』, 平凡社, 1990, 83쪽.

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제우스의 입장에서 보면 페르세포네의 납치는 사실 납치가 아니라 약속에 의한 결과일 뿐이므로 ‘딸을 잃은 부성’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에게 딸은 타인에게 증여될 수 있는 아버지의 종속물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딸의 상실에 슬퍼하고 분노하는 어머니가 딸과 맺는 모녀 관계는 딸을 종속물로 여기는 부녀 관계와는 명확히 다르다. 어머니에게는 슬픈 일이 아버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딸이 지니는 의미와 어머니에게 딸이 지니는 그것이 다르다는 점을 가리킬 터다. 그렇다면, 비탄에 잠긴 어머니에게 잃어버린 딸은 과연 어떤 의미였는가? <데미테르 찬가>에서 어머니 데메테르에게 딸 페르세포네는 어떤 존재였기에 데메테르는 곡물신으로서의 사회적 직능을 방기하면서까지 페르세포네를 원했던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에는 앞서 살폈던 B 삽화, 즉 데모폰 이야기가 좋은 실마리가 된다. 딸을 잃은 비탄과 신들에 대한 분노로 올림포스를 떠나 노파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을 유랑하던 데메테르는, 물가에 앉아 쉬다가 엘레우시스의 왕 켈레오스의 딸들을 만난다. 어디서 온 누구인지, 왜 이 곳에 있는지를 물으며 자신들의 집에 가면 여러 여인들이 돌보아줄 것이라고 말을 거는 켈레오스의 딸들에게, 데메테르는 자신을 ‘도소(Doso)’라는 여인으로 소개하며 해적들에게 붙잡혔다가 도망쳐 왔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데메테르의 말을 보자.

부디 올림포스의 신들이

부모들의 바람대로 너희에게 결혼할 남편과 잉태할 아이들을 주시기를.

이제 나를 가여이 여겨 다오, 아가씨들아.

기꺼운 선의로 말해 다오,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내가 누구의 집에 갈 수 있는지,

(…)

나는 갓 태어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단다.

내 팔에 아이를 품고, 집을 볼 수도 있단다.(밑줄 필자)

주인이 쉼 침대를 잘 펼 수도 있고

여자들에게 그들의 일을 가르칠 수도 있단다.(135-144행)

신의 세계를 떠나 인간 세상을 떠돌던 데메테르는 여기에서 아이를 돌보

고 가사를 살피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침내 켈레오스와 메타네이라는 늑동이 아들 데모폰을 맡아 키우게 된다. 딸을 잃고 방랑하던 데메테르가 비록 인간 세계이기는 하지만 정착하여 맡은 일은, 바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일’이었던 것이다. 데메테르는 데모폰의 몸에 암브로시아를 바르고 밤이 되면 불꽃 속에 데모폰을 놓아 두며 불로불사의 존재로 자라도록 돌본다. 딸을 잃은 어머니 데메테르는, 데모폰이라는 유사 아들을 돌보는 것으로 그 슬픔을 달랜다. 데메테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인간 데모폰을 불사의 존재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어머니 데메테르는 자식을 빼앗기는 슬픔을 반복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데메테르에게 자식이란 영원히 옆에 두고 돌보고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어머니 데메테르는 자식을 보살피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데메테르는 딸을 잃음으로써 자식을 보살피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훼손당했으나, 유사 아들을 얻어 그를 보살핌으로써 어머니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데메테르의 기도(企圖)는 실패로 끝난다. 딸 페르세포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보살핌은 제우스와 하데스로 인해 실패했고, 유사 아들 데모폰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보살핌은 어리석은 인간 메타네이라로 인해 실패하고 만다. 불 속에 놓인 데모폰을 엿보게 된 메타네이라는 어리석게도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비명을 지르고, 이 때문에 유사 아들에 대한 보살핌마저 실패에 이르러 절망한 데메테르는 제우스와 신들에게 그러했듯 메타네이라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화가 난 데메테르는 낚아채었다
불꽃으로부터, 신의 손으로, 메타네이라가 낳은
귀여운 아이를.
희망을 잃고 격노하여 그를 바닥에 내던졌다.(251-254행)

신의 세계에서 보살피는 어머니로서의 가치를 훼손당한 후 인간의 세계에서 또 한 번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려 한 데메테르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간다. 신들의 세상에서 떠나온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이제 데메테르는 인간 세상마저 떠나기 위해 신전을 짓게 하고 그 안에 칩거한다. <데메테르 찬가>에서 어머니 데메테르의 모습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핵심적 모습은 보

살피는 존재로서의 어머니이다. 그 보살핌이 불가하게 될 때, 어머니는 슬퍼하며 어머니였던 곳을 떠나 은거한다.

페르세포네의 어머니이든 데모폰의 유사 어머니이든, 어머니 데메테르의 행위는 자식을 보살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보살핌이 실패할 때 데메테르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다. 데메테르가 보호자이자 양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자리를 되찾는 것은 곡물신으로서의 태업을 통해서이다. 이를 통해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의 어머니 자리를 되찾음과 동시에, 인간들에게 비의를 제공함으로써 비의 입사자들의 사후 안락을 보살피는 어머니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데메테르 찬가>에서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의 어머니이자 데모폰으로 대표되는 엘레우시스 비의 입사자들의 유사 어머니로서, 그들을 보살피는 어머니로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어머니 데메테르에게 자식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보살핌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²⁾

2. 매개하는 어머니

<데메테르 찬가>에서 신의 세계는 제우스가 다스리는 천상의 올림포스, 하데스가 다스리는 지하 세계로 나뉘어 있다. 두 세계는 원칙적으로 상호 단절적인 분리된 세계이다. 올림포스의 데메테르는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한 것을 알면서도 지하세계를 직접 찾아가지 못하며, 올림포스의 다른 신들도 분리된 공간을 오가는 사자(使者)의 역할을 수행할

22) 데메테르에게 보살핌의 모성은 슬픔과 분노라는 감정을 일으킬 만큼 내재화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보살핌'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사회가 어머니 여성에게 요구하는 대표적인 노동 형태이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아닌 그리스 사회의 가부장제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역할로 '보살핌'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 이 지점에서 더 따져보아야 할 것은 보살핌의 모성이 모성성의 고유한 본질인가 아니면 오래 지속되어 오기는 했으나 하나의 사회 체제일 뿐인 가부장제가 내세운 이데올로기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상론은 다른 지면으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다만 <데메테르 찬가>에 나타난 어머니 데메테르의 모성은 '보살핌'이라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 또 그것은 <데메테르 찬가>의 시공간적 배경인 그리스 사회의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와 연동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때에라야 지하 세계를 다녀갈 수 있다.

<데메테르 찬가>의 세계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공간은 이 두 신의 세계와 구분되는 인간들의 공간, 지상계이다. 인간의 지상계는 천상계와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비대칭적 교류는 이루어진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지상 세계에 내려올 수 있고-페르세포네는 지상의 평원에 내려와 꽃놀이를 즐기고, 데메테르는 햇볕을 들고 딸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맨다-, 곡물의 싹을 틔우는 데메테르의 역할에서 확인되듯 인간 세상의 제반사에 관여한다. 그렇다고 해서 신들과 인간이 동등한 자격으로 ‘교류’하는 것은 아니다. 데메테르는 원래의 모습이 아닌 인간 노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서야 인간들의 세상에 함께 하고, 신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이후에는 지상의 특별 공간인 신전에 거주한다. 천상계와 지상계는 가호와 제향(祭享)을 전제로 이어지되, 천상계가 지상계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며 구분되어 있다.

하데스의 지하 세계는 인간들의 지상계와는 더욱 명확히 구분된다. 지상의 인간들에게 지하 세계는 죽음의 공간으로서 두려운 곳일 따름이며, 지하 세계의 신은 올림포스의 신처럼 지상 세계에서 자유로이 활보하지도 않는다. 제우스가 페르세포네를 주었을 때, 하데스는 땅이 갈라지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고 나서야 지상에 나타나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간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야 하데스는 지상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지상은 제우스와 하데스의 거래-제우스의 딸 페르세포네를 주고 받는-가 이루어지는 장소일 뿐, 하데스가 지배하는 공간은 아니었다.

지하 세계와의 단절적 관계 때문에, 지하 세계의 하데스에게 딸을 빼앗긴 데메테르는 비탄에 잠겨 지상 세계를 유랑할 뿐 딸을 찾아 직접 지하 세계로 내려가지 못한다. 데모폰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려 하다가 실패하기까지 한 데메테르는, 주지하다시피 이제 곡물신으로서의 태업을 선택한다.

그녀는 인간들에게 지독하고 잔인한 한 해를 가져왔네
 땅은 어떤 씨앗도 싹틔우지 못했네
 왜냐하면 빛나는 왕관을 쓴 데메테르가 그것을 문헌 그대로 두었기
 에.(305-307행)

씨앗을 땅에 뿌려본들 싹은 트지 않는다. 땅에 뿌린 씨앗이 싹트게 하는

것은 곡물신의 의무이나, 데메테르가 그 곡물신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데메테르의 태업은 인간뿐만 아니라 올림포스의 신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인간은 굶어죽을 위기에, 올림포스의 신들도 인간들이 바치는 공물을 받는 영예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제우스는 여러 신들을 보내어 데메테르의 마음을 돌리려 하는데, 데메테르가 전한 말은 다음과 같다.

향기로운 올림푸스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그리고 어떤 씨앗도 땅 위에서 싹트지 못하게 하리라고,
그녀가 그녀의 눈으로 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331-333행)

즉, 데메테르가 태업을 선택한 목적은 잃어버린 딸 페르세포네를 다시 보는 데 있었다. 딸이 단절된 지하 세계로 납치되어 다시는 딸을 볼 수 없게 되자, 데메테르는 태업을 통해 신들을 위협하여 딸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태업의 결과 데메테르는 부분적으로나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페르세포네는 매년 한 해의 일부는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의 아내로, 그 나머지는 그곳을 떠나 데메테르의 딸로 살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데메테르가 딸 페르세포네를 다시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지상과 지하 세계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단절적이었던 두 공간은, 페르세포네의 반복되는 왕환(往還)으로 서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스 신화 세계에서 하데스의 지하 세계는 풍요의 원천이기도 하기에,²³⁾ 하데스의 아내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온다는 것은 지하 세계의 풍요가 지상에 도래한다는 의미를 지니게도 된다. 게다가 지하 세계의 여주인이 된 페르세포네는 죽음 이후 지하 세계로 떠나갈 인간들의 의지처가 될 수 있다. 지하 세계와 지상 세계를 왕래할 수 있게 된 페르세포네에 의지하여, 지상의 인간은 사후의 평온과 지하 세계의 풍요를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절된 세계가 이어지게 된 것, 신화 서사적으로는 지하 세계의 여주인 페르세포네가 지상과 지하를 매해 왕복하게 된 것은 바로 데메테르의 태업이라는 행위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데메테르는 빼앗긴 딸을 되찾아오

23) 피에르 그리말(최애리 외 역), “하데스”, 앞의 책.

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²⁴⁾ 이를 통해 데메테르는 곡물신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왜냐하면 <데메테르 찬가>에서 노래된 페르세포네의 납치 사건과 그 해결 이후, 데메테르는 단절되었던 지상과 지하 세계를 매개하여 지하 세계의 풍요가 지상에 구현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데메테르는 인간들에게 사후 세계의 안녕을 약속하게도 된다. 딸을 되찾은 어머니 데메테르는, 이질적인 두 공간을 ‘매개’함으로써 풍요와 사후 안녕을 약속하는 신으로서 엘레우시스 비의의 주신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²⁵⁾

데메테르가 질적으로 서로 다른 세계를 매개하는 존재라 한다면, 혹 데메테르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질서의 주재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여신의 원초적 창조성에 주목하는 시각에서라면 데메테르의 이러한 모습은 질서를 주재하는 창조자적 면모로 읽힐 여지도 없지 않기에, 이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데메테르가 제우스의 질서에 반발하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데모폰 삽화에서 인간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려 했던 데메테르의 행위는 인간은 죽는다는 기존의 규칙에 반하는 것이며, 씨앗이 움트지 못하게 한

24) Helene P. Foley ed., “The ‘Theology’ of the Mysteries”, 앞의 책, Loc 3577 of 10435 참조.

25) 지상과 지하에서 한 해의 일정 기간을 보내는 페르세포네는 땅에 묻혔다가 자라나 익는 곡물의 주기를 표상하는 곡식 이삭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풍요는 어머니 데메테르의 생산력 또는 재생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데메테르 찬가>에서 페르세포네는 대지를 상징하는 어머니 데메테르의 품 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공간이 아닌 지하 세계로 끌려갔다가 어머니의 매개에 의해 그 곳의 풍요를 가져 온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묵은 씨앗(종자)의 분신으로서의 햇곡식(이삭)이라는 차원에서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 논문의 한 심사자는 페르세포네가 원래 데메테르의 딸이었다기보다는 독립적인 지하의 여왕이었다가 점차 데메테르와 통합되어 모녀 사이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본 선행 연구를 제시해 주었다. 본고에서는 ‘어머니 데메테르’에 주목했지만, 심사자의 지적대로 ‘딸 페르세포네’, 나아가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모녀화(母女化)’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페르세포네’라는 이름의 외래성, 엘레우시스와 아테네의 정치적 관계 등 역사적 현실을 고려하여 ‘데메테르-페르세포네 모녀 신화’의 의미, 생성 및 변천 양상을 추론할 후고를 기대해 본다.

태업 또한 기존의 질서 체계 내에서 곡물의 신에게 부과된 임무에 어긋나는 것이다.²⁶⁾ 그러나 데메테르의 이러한 행위들은 제우스의 질서를 전복하는데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 데모폰을 불사의 존재로 바꾸려고 하던 데메테르의 의도는 실현되지 못한 채 결국 사후의 안녕을 약속하는 데 그치며, 곡물신으로서의 의무 방기는 결과적으로는 지하 세계의 풍요를 도래하게 함으로써 더욱 충실히 수행되기에 이른다. 데메테르는 사건의 해결을 촉발할 뿐, 결국 그 해결을 주도하는 것은 제우스이다.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데메테르에게 돌려보내게 한 것도 제우스고, 데메테르의 어머니 레아를 보내어 데메테르를 올림포스로 소환하고 곡물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한 것도 결국 제우스이다. 〈데메테르 찬가〉에서 질서의 주재자는 시종 제우스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데메테르의 역할을 무시하고 말 수는 없다. 데메테르는 자신의 동의 없이 하데스에게 딸을 내어 준 제우스에 대해 엘레우시스 신전의 은거를 통해 반발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제우스의 행위에 동의할 수 없으며, 행위의 회수 없이는 제우스가 주재하는 질서 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거부권[veto] 행사이다. 거부권 행사와 합의, 이를 통한 공동체에의 참여라는 그리스 폴리스의 사회적 관습이 〈데메테르 찬가〉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²⁷⁾ 남신 제우스가 주재하는 질서는 변함이 없지만, 여신의 도전은 그 질서로 인한 문제가 보완되는 긍정적 결과를 보여준다.²⁸⁾

그러나 여전히, 여신은 질서를 주재하지 않는다. 데메테르가 매개하여 지상과 지하가 관련을 맺게 된 것도, 결국은 제우스의 직접적 제안과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데메테르 찬가〉에서 데메테르는 문제를 제기하여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게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질서의 재편이 남신의 주재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26) Helen P. Foley ed., “Gender conflict and the Cosmological Tradition”, 앞의 책, Loc 4096 참조.

27) Douglas Al-Maini, “The Political Cosmology of the Homeric Hymn to Demeter”, *The Journal of Indo-European Studies*, vol. 37, 2009 참조.

28) 〈데메테르 찬가〉는 제우스의 지배에 대한 데메테르의 도전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Helen P. Foley ed., “Gender conflict and the Cosmological Tradition”, 앞의 책, Loc 4105-4111 참조.

IV. 남성 사회의 여신 신화

1. 레아의 딸, 페르세포네의 어머니

<데메테르 찬가>에는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모녀 뿐만 아니라, 어머니 레아와 딸 데메테르라는 또다른 모녀도 등장한다. 그런데 어머니 레아가 어려움에 처한 딸 데메테르에게 한 행위는, 딸 페르세포네를 위한 어머니 데메테르의 행위와는 변별적이다. 데메테르가 딸과의 재회를 위해 기존 질서에의 비토를 선언한 데 반해, 레아는 제우스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체제에 귀환하기를 딸에게 요구한다.

레아가 말했다

“아이야, 천둥 소리를 내는 제우스가

신족(神族)에 다시 참여하라고 너를 소환하였다.

그는 네가 어떤 명예를 선택하든 주마고 하였다.

그는 동의했다, 그의 딸이 한 해의 3분의 1을

침침한 어둠 속에서 보내는 데에, 그리고 3분의 2를

그녀의 어머니와 또 다른 신들과 보내는 데에.

(…)

자, 인간들을 위해 곡물들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거라.”

레아의 말에 데메테르는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데메테르는 바로 비옥한 들판에 결실을 내보냈고

대지는 잎과 꽃으로 가득찼다.(459-472행)

딸 데메테르가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어머니 레아는, 아들 제우스의 말을 전하기 위해 비로소 딸 앞에 나타난다. 어머니 레아는 딸 데메테르에게 비토를 거두고 아들 제우스의 질서 체제 내로 귀환하라고 말한다. 여기에서의 레아의 역할은 데메테르의 어머니라기보다 제우스의 어머니라는 데 방점이 찍힌다. 레아는 제우스의 어머니로서 아들의 질서가 지속되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머니 데메테르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던 보살핌의 모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어머니’로서 데메테르가 지니는 레아와의 변별점은 ‘보살핌’에 있음을 재

확인하는 한편, 보살핌은 모든 어머니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어머니 데메테르에게 특화되어 있는 특성임이 드러난다.

곤경에 처했을 때 어머니 레아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데메테르이지만, 데메테르는 레아와는 다르게 자신의 딸과 유사 자식들을 보살핀다. 그러면서도 데메테르는 올림포스로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타이름을 거역하지 않는다. 자신의 딸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비토한 바 있는 질서의 주재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체제 속으로 데메테르는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데메테르의 귀환에 어머니 레아가 중요한 매개로 기능한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메테르에게 어머니 레아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 주도하는 질서와 데메테르 자신을 연결시키는, 다시 말해 기존 체제와의 끊을 수 없는 연결 고리로서 기능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딸 데메테르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머니의 아들이 주재하는 기존의 질서로 소환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다른 신들을 통해 행해졌던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다가 레아의 말에 올림포스로의 귀환을 결정하는 데메테르의 모습은, 딸을 되찾은 어머니로서의 목적 달성과 더불어 어머니를 외면하지 못하는 딸의 운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오라비의 편인 어머니와, 딸의 운명을 독단으로 주재하는 남편을 가진 데메테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가부장의 여성 배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데메테르 찬가>에서 데메테르는, 딸을 위해 남편의 질서를 비토하면서도 남편이자 오라비인 제우스의 편을 드는 어머니를 거역하지 못한다. 오라비의 편인 어머니의 딸이기에, 자신의 딸과 함께 또다른 세계를 구축하지는 못한 채 다시 남편과 오라비의 세계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여성. <데메테르 찬가>는 이러한 여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2. 여성 '연대'의 의미

<데메테르 찬가>에서 데메테르의 감정적 주조는 슬픔과 분노다. 어머니 데메테르의 슬픔과 분노를 녹이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다른 여성신 혹은 인간 여성들이었다. 페르세포네의 상실을 야기한 자들은 남과 여를 가리지 않지만,²⁹⁾ 그것을 위로한 것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딸을 찾아다니는 데메테르를 보다 못해 실종의 전말을 데메테르에게 알려 준 것은 여신 헤카테였

고, 이후 올림포스를 떠나 방황하던 데메테르에게 안식을 제공한 것은 인간 여성들이었다. 노파로 변장한 데메테르는 인간 여성들의 보살핌 속에서 딸의 상실 이후 처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그들에게서 또다른 어머니가 될 기회를 제공받기까지 한다. 남성이 주재하는 질서로부터 비롯한 문제에 당면한 여신은, 다른 여신/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계기와 공간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신 데메테르가 여성들에게 받은 위로가 슬픔과 분노의 완전한 해소로 이어지는 못했다는 데 있다. 데메테르의 또 한 번의 ‘어머니 되기’의 시도는 그 기회를 제공했던 여성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고 만다. 데메테르의 슬픔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이에 데메테르는 신전에 은거하여 농작물이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쌓여온 슬픔과 분노를 표출한다. 데메테르의 이러한 행동은 남신 제우스가 주관하는 질서를 비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행동이며, 결국 성공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 문제의 해결은 여신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뜻이며, 다른 여신의 도움이나 여성들의 위안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조력이나 대리가 되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헤카테와 같은 여신들 또한 기본적으로 제우스의 질서 내에 놓여 있고, 메타네이아가 보여주듯 인간 여성은 여신 데메테르를 위로할 뿐 인간적인 어리석음이라는 한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렇듯 데메테르는 여성들로부터 위안을 얻기는 했지만, 최종적인 상처의 극복과 문제의 해결은 그녀 스스로 비토권을 행사하고 그것이 남신에게 수용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요컨대 <데메테르 찬가>에서 데메테르는 여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했다기보다, 여성들의 위안과 보호를 디딤돌 삼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심정적 여유와 계기를 마련하고 제우스와 하데스의 협상 결과에 비토를 제기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데메테르 찬가>가 그려내는 세계는 여성적 원리-그것이 생산이든

29) 페르세포네의 납치는 데메테르가 배제된 채 제우스와 하데스만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데, <데메테르 찬가>는 여기에 여신 가이아도 가담한 것으로 그려낸다. 페르세포네는 꽃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하데스에게 납치되는데 그 꽃을 피워낸 것이 바로 가이아이기 때문이다.

보살핌이든 간에-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다. ‘남신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여신이 다른 여신/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 여신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식의, 거칠게 표현하면 낭만적인 여성주의적 해석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는 적다고 생각된다. 남신들이 마련하고 주재하는 질서 속에서 고통받은 데메테르는 그 질서 체계로부터의 탈주가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주어진 또다른 의무에 대한 비토를 통해 의무이자 권리인 보살핌의 모성을 회복하고, 회복 이후 남신들이 주재하는 세계로 다시 들어간다. 보살핌의 모성이 질서의 밖이 아니라 결국은 질서 안으로(또는 안에서) 수용된다는 점을 볼 때, 데메테르가 구현하는 모성은 남성적 질서 위에서 배치된 모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⁰⁾

여성들에게 위안을 받았던 데메테르가 여성이 아닌 남성 인간들에게 남성적 방식-명령과 계약-으로 자신을 제향할 것을 요구한 것도 주목을 요한다. 데메테르를 숭배하던 또다른 의례인 테즈모포리아는 여성만이 참가하는 여성 의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적어도 <데메테르 찬가>가 말하는 엘레우스시스 비의는, 다름아닌 ‘남성’ 지배자들에게 수행할 것을 명령하여 이루어진 의례였다.³¹⁾ 모성을 회복한 데메테르가 자신의 ‘어머니다움’, 즉 ‘보살핌’을 인간에게 약속할 때, 약속의 상대자는 데메테르에게 위안을 주었던 여성이 아니라 엘레우스시스의 남성 지배자였던 것이다. 여기에서도, 데메테르의 모성이 남성 사회의 질서 안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조하건대 <데메테르 찬가>를 지배하는 원리는 시종 남성 세계의 그것이며, 데메테르의 모성 역시 이 세계와 불가분의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데메테르 찬가>를 읽는다면, 지하 세계로 납치된 딸을 다시 자신의 옆에 돌려놓음으로써 보살피는 어머니의 자리를 회복하고 엘레우스시스 비의의 주신이 된 데메테르 이야기에서 당대의 제도가 ‘어머니’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데메테르 찬가>에서 어

30) 여기에서, 이러한 데메테르의 모성이 여성적 본질인가를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성이 여성의 본성인가, 내재화를 요구받는 이데올로기인가에 대한 해묵은 주제는 이 지면의 논제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데메테르 찬가>에 구현되어 있는 데메테르의 모성이 제우스가 주재하는 세계의 ‘산물’임을 말해두는 데 그치기로 한다.

31) <데메테르 찬가> 473-479행 참조.

머니의 의무이자 본성은 자녀를 보살피는 것이라고 규정되고 있고, 문제적 상황에 대한 대처는 질서의 전복이 아니라 매개를 통한 조정과 적응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데메테르 찬가>는 당대의 제도가 ‘어머니’에게 가하는 고통을 폭로하고, 그 고통의 위무와 해결이 그 제도의 주재자들인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데메테르 찬가>에 등장하는, 데메테르를 위로하는 여성/여신들을 여성들의 ‘연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들은 연대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다기보다 공감과 위로를 통해 남성의 질서를 살아나갈 힘을 얻어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 공감과 위로의 공간을 새롭게 구축된 여성 공간이라고 칭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여성 공간은 남성 질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남성 질서의 내부에 놓인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V. 결론

<데메테르 찬가>의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의 어머니로서, 또 데모폰의 유사 어머니로서 자식에 대한 ‘보살핌’과 서로 다른 두 집단의 ‘매개’라는 특성을 지니는 모성의 소유자이다. 데메테르의 모성이 ‘재생’이나 그것을 포함하는 ‘생산’에 있다고 보는 견해는, 적어도 <데메테르 찬가>의 경우에는 수정될 여지가 매우 크다. 또한, <데메테르 찬가>의 모녀 관계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적 질서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관계라 하기도 어렵다.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모녀 관계는, 페르세포네가 아닌 데메테르에 초점을 맞추어 데메테르가 오라비(=제우스)의 편인 어머니(=레아)를 지닌 딸로서 남편(=제우스)의 소유물인 딸 페르세포네를 보살피어야 하는 어머니라는 지점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바, 이러한 데메테르가 가부장제와 무관한 인물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데메테르 찬가>가 놓여있던 시공간이 가부장제적 사회였음은 분명한바, <데메테르 찬가>에서 엿볼 수 있는 젠더 양상은 그러한 제도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데메테르 찬가>는 향유의

맥락상 여성들의 전유물도 아니었기에 여기에서 드러나는 어머니 데메테르의 형상은 여성들만이 향유하는 고유하고 배타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적어도 <데메테르 찬가>라는 텍스트에 국한한다면, 페르세포네의 어머니 데메테르 이야기는 가부장제 이전의 여신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신화라기보다 가부장제와 함께 형성된, 가부장제 사회의 여신 신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곡물의 여신 데메테르는 <데메테르 찬가>에서 지하 세계의 힘을 지상에 끌어들이므로써 풍요신으로서의 색채가 더 풍성해졌고, 비밀 의례를 통해 인간의 사후 세계를 보살피는 신격으로도 거듭났음이 확인된다. 데메테르는 생산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이 아니라, 보살피고 매개하는 어머니였기에 곡물신이면서 그 신적 범위를 확장하여 엘레우시스 비의의 주신이 될 수 있었다.

한편 데메테르가 트립톨레모스에게 농경을 가르치고 이것을 인간들에게 전하도록 했다는 신화적 기록이나 이와 관계되는 도편 그림 등은, 데메테르가 농경의 기원자로서 인식되면서도 남성인 트립톨레모스가 농경 전파의 주도자로 부각되었음을 알려 준다. 어떤 연유와 배경 속에서 남성이 농경의 신으로 형상화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데메테르는 어떤 의미와 위상을 지니는 신격으로 변화해 갔는지가 향후 신화사적 시각에서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데메테르의 신화사적 위상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라야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다시 말해 <데메테르 찬가>를 포함한 여러 텍스트에서 데메테르의 여신적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개별적으로 고찰하고 그 결과물들을 집적할 때, 신화사적 차원에서의 데메테르 여신의 변천사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생산하는 모성'을 여성적 본질로 규정하고 이것의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곤 하는 '여신사'가, 이런 논의의 축적을 통해 다면적으로 보완되어 그 입체적 면모를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그로스(김윤성·이유나 옮김), 『페미니즘과 종교』, 청년사, 1999.
- 그리말(최애리 외 역), 『그리스 로마 신화사전』, 열린책들, 2003.
- 김봉철, 『그리스 신화의 변천사』, 길, 2014.
- 김효진, 「고대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아의 변화 양상-아테네 상황과 관련하여-」, 전남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엘리아데(이재실 옮김), 『종교사개론』, 까치, 1993.
- 오비디우스(천병희 역), 『로마의 축제들』, 숲, 2010.
-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최혜영,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아: 데메테르·이시스·이난나의 비교」, 『서양사론』 83, 2004.
- 최혜영, 「고대 그리스 사회의 종교: 여신과 여성」, 『여성과 역사』 8, 2008.
- 최자영, 「엘레우시스와 아테네: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정치적 지역적 연계의 유연성」, 『서양고대사연구』 22, 2008.
- 플레이저(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겨레신문사, 2003.
- 헤시오도스(천병희 옮김), 『신들의 계보』, 숲, 2009.
- 杵掛良彦 역, 『ホメーロスの諸神讃歌』, 平凡社, 1990.
- Alderink, L.J., “Mythical and Cosmological Structure in the Homeric Hymn to Demeter”, *Numen* vol. 29, 1982.
- Al-Maini, D., “The Political Cosmology of the Homeric Hymn to Demeter”, *The Journal of Indo-European Studies*, vol. 37, 2009.
- Foley, H.P.(ed.), *The Homeric Hymn to Demeter: Translation, Commentary, and Interpretive Essay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94.

❖ ABSTRACT

A Study on the Goddess Demeter in
The Homeric Hymn to Demeter

Jeong, Jinhee

This essay deals with The Homeric Hymn to Demeter, a aetiological myth about the Eleusis Mysteria. The narrative of the hymn shows how Demeter, the goddess of grain, became the deity of the Mysteria. In the hymn, Demeter is characterized as a mother: She is the mother of Persephone and the motherlike nurse of Demophone. As the mother of Persephone and Demophone, the roles of are nursing and mediating. She care her children and linked the earth and the world below, the heaven of gods and the earth of mortals. Demeter the deity of the Mysteria by a mother.

The and the maternity of Demeter is connected with patriarchal politics. Demeter in the hymn is not so much the goddess who derived her character from The Great Mother as the goddess who had been characterized the influence of Greek-patriarchy.

Key Words : Demeter, goddess of grain, Persephone, Demophone, maternity, mother, nursing, mediating, The Homeric Hymn to Demeter, Eleusis Mysteria

■ 논문접수일 : 2018. 05. 10

■ 심사완료일 : 2018. 05. 31

■ 게재확정일 : 2018. 06. 30

